

#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Volunteer Activities among Older Adults

이성은<sup>1</sup>

Sungeun Lee<sup>1</sup>

###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2023년도 사회조사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71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T-test, Chi-square 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관련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T-test 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사회적 계층의식, 사회활동에 있어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사회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어 : 노인,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인적 자본, 로지스틱 회귀분석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elderly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volunteer activities.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2023 Social Survey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were analyzed, focusing on 716 individuals aged 65 and older who reported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Analytical methods included frequency an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Chi-square test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categorized into socio-demographic factors, health-related factors, and social factors. The T-test results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ose who engaged in professional volunteer activities and those who did not, in terms of age, education level, perceived social class, and social activity involvemen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age, education level, and social activity involvement significantly influenced elderly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volunteer activities. More specifical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as age increases, the likelihood of older adults participating in professional volunteer activities decreases and a higher level of education was associated with a greater likelihood of participation. Additionally, older adults who were more actively engaged in social activities

<sup>1</sup> Department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Professor]  
e-mail: lees@pusan.ac.kr

Received(September 19, 2025), Review Result(1st: October 7, 2025), Accepted(December 12, 2025), Published(December 31, 2025)



© 2025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professional volunteer activiti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word : Older adults, Professional volunteer activities, Human capit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1. 서론

연장된 수명과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년의 삶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사회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나 노년기의 다양한 상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노화를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

이러한 측면에서 자원봉사는 노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적 노화활동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에게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봉사활동 여부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3], 노인의 우울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며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노년기 삶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의 존재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구성원의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미래 노인세대의 경우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요구는 더욱 부각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등장과 함께 축적된 삶의 경험 및 지혜,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표출되고 있다 [5]. 1955년~1964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신노년층은 학교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과 직업적 노하우가 축적된 집단으로 [6] 은퇴 후에도 경력과 자본의 지속적인 활용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산층 노인들의 경우 고학력과 전문적 직업경험과 같은 인적자원을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참여는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7]. 노인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전문자원봉사의 경우 일반적인 봉사와 비교시 유의미하게 높은 임파워먼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8]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활용한 노인 자원봉사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는 전문성을 활용한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분석대상

본 연구는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조사는 전국 규모의 자료로 사회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이며 [9]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총 716명의 자료가 분석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 2.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로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직업이나 자격증, 전공 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야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참여(1), 미참여(0)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혼인상태, 소득이 포함된다. 연령은 만 연령이 연속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성별은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부터 '대학교 졸업 이상 4'으로 구성되었다. 거주지역은 동부를 의미하는 도시를 1, 읍면부를 의미하는 농촌을 0으로 코딩하였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을 1, 배우자 없음을 0으로 코딩하였다. 소득은 월 평균 가구의 총소득을 의미하며 '100만원 미만 1' 부터 '800만원 이상 9'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건강관련 요인은 신체적 상태 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성취감으로 구성되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스스로 옷 입기나 목욕하기 등 자기관리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응답은 '전혀 어렵지 않다 1'~ '전혀 할 수 없다 4'로 이를 재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인지기능은 기억하거나 집중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응답은 '전혀 어렵지 않다 1'~ '전혀 할 수 없다 4'로 이를 재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성취감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사회 및 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응답은 '매우 만족한다 1'~ '매우 불만족한다 5'로 이를 재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요인은 사회적 신뢰감, 사회적 계층의식, 사회적 관계망, 사회활동, 대인관계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신뢰는 우리 사회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응답은 ‘매우 믿을 수 있다 1’~ ‘전혀 믿을 수 없다 4’로 이를 재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계층의식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상상 1’~‘하하 6’으로 구성된 응답을 재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계층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망은 평소 대면 및 비대면으로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과 교류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사회활동은 지난 1년간 친목, 취미단체 등 단체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총합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봉사단체 참여에 대한 응답은 제외하고 총합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 개인적 인간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응답은 ‘매우 만족한다 1’~ ‘매우 불만족한다 5’로 이를 재코딩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는 SAS 9.4가 사용되었으며 먼저 연구대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 사회적 요인 및 종속변수인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여부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 사회적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Chi-square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예측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 사회적 요인과 종속변수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평균 70.7세(sd=5.0)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노인이 359명(50.1%), 여성 노인이 357명(49.9%)으로 거의 동등한 비율을 보여주었다. 교육수준은 평균 2.7(sd=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도시 지역 거주 노인이 441명(61.6%)으로 농촌 지

역 거주 노인 275명(38.4%) 보다 많았다.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563명(78.6%)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 153명(21.4%) 보다 많았다. 소득은 평균 3.2(sd=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요인에 있어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평균 3.9(sd=.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기능은 평균 3.7(sd=.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감의 경우 평균 3.4(sd=.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신뢰는 평균 2.7(sd=.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계층의식은 평균 3.1(sd=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은 평균 6.8(sd=6.3)이었으며, 사회활동은 평균 2.2(sd=1.2)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만족도의 경우 평균 3.9(sd=.8)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에 참여한 노인은 151명(21.1%), 참여하지 않은 노인은 565명(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s		Mean/N	SD	%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70.7	5.0	
	Gender	Male	359		50.1
		Female	357		49.9
	Education		2.7	1.0	
	Region	City	441		61.6
		Rural	275		38.4
	Marital status	Having a spouse	563		78.6
		Not having a spouse	153		21.4
Income		3.2	1.7		
Health related factors	Adl		3.9	.3	
	Cognitive function		3.7	.5	
	Sense of accomplishment		3.4	.9	
Social relational factors	Social trust		2.7	.6	
	Perceived social class		3.1	1.0	
	Social network		6.8	6.3	
	Social activities		2.2	1.2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		3.9	.8	
Dependent variable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volunteer activities	Yes	151		21.1
		No	565		78.9

### 3.2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건강관련, 사회적 요인의 차이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여부에 따라 독립변수들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결과 연령, 교육수준, 사회적 계층의식, 사회활동이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노인과 참여하지 않은 노인집단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를 한 노인집단의 연령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이 69.8세(sd=4.3)였으나 그렇지 않은 노인집단의 평균 연령은 71.0세(sd=5.1)로 나타났다. 즉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를 한 노인집단의 평균 연령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건강관련, 사회적 요인의 차이  
 [Table 2] Differences of Socio-demographic, Health related, Social Factors by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Volunteer Activities of Older Adults

Variables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volunteer activities (Yes)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volunteer activities (No)	X <sup>2</sup> (t value)	
Socio-demographic factors	Age(mean, sd)	69.8(4.3)	71.0(5.1)	2.96**	
	Gender (N, %)	Male	77(51.0)	282	.6
		Female	74(49.0)	283	
	Education(mean, sd)	3.0(.8)	1.0(1.0)	-3.89***	
	Region (N, %)	City	103(68.2)	338(59.8)	3.54
		Non-city	48(31.8)	227(40.2)	
	Marital status (N, %)	Having a spouse	116(76.8)	447(79.1)	.37
Not having a spouse		35(23.2)	118(20.9)		
	Income(mean, sd)	3.4(1.7)	3.2(1.6)	-1.33	
Physical factors	Adl(mean, sd)	3.9(.3)	3.9(.2)	-.23	
	Cognitive function(mean, sd)	3.7(.5)	3.7(.5)	-.78	
	Sense of accomplishment(mean, sd)	3.5(.9)	3.4(.9)	-1.57	
Social relational factors	Social trust	2.7(.7)	2.7(.6)	.49	
	Perceived social class	3.3(1.1)	3.0(1.0)	-2.11*	
	Social network	7.5(6.6)	6.6(6.2)	-1.58	
	Social activities	2.5(1.2)	2.1(1.2)	-3.43***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	4.0(.8)	3.9(.8)	-1.06	

\*p<.05, \*\*p<.01, \*\*\*p<.001

다음으로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를 한 노인집단의 평균 교육수준은 3.0(sd=1.0)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집단의 경우 평균 2.6(sd=1.0)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를 한 노인집단의 평균 교육수준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의 경우 사회적 계층의식과 사회활동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를 한 노인집단의 경우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계층의식은 평균 3.3(sd=1.1)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노인집단은 평균 3.0(sd=1.0)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를 한 노인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신의 사회적 계층을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의 경우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를 한 노인집단의 경우 평균 2.5(sd=1.2)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노인집단의 경우 평균 2.1(sd=1.2)로 나타났다. 즉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를 한 노인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3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3]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Volunteer Activities among Older Adults

	Variables	b	β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0493	-.1354*
	Gender	-.0461	-.0127
	Education	.2436	.1396*
	Region	.2669	.0716
	Marital status	-.3498	-.0791
	Income	-.0494	-.0452
Health related factors	Adl	-.1316	-.0185
	Cognitive function	.1508	.0418
	Sense of accomplishment	.0615	.0300
Social factors	Social trust	-.1672	-.0585
	Perceived social class	.0801	.0457
	Social network	.0072	.0249
	Social activities	.1972	.1310*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	.0697	.0308
-2LL	704.368		
X <sup>2</sup> (df)	33.3108(14)**		
Nagelkerke R2	.0707		

\*p<.05, \*\*p<.01, \*\*\*p<.001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과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별, 지역, 혼인상태, 소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강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성취감 모두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의 경우 사회활동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사회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회적 신뢰, 사회적 계층의식, 사회적 관계망, 대인관계 만족도는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연령과 교육수준, 사회활동 정도가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의 경우 전문성 자원봉사에 참여한 노인의 평균 연령은 69.8세로 70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인구 중 상당히 연소한 노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소노인의 시기는 노년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 시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후의 노년기를 인식함으로써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10] 연소노인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은퇴 전부터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소노인의 은퇴와 은퇴 이후의 사회 참여과정의 원활한 연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은퇴 후 사회참여 지원 정책은 사회적 지지와 여가의 결합을 통해 은퇴자의 자아존중감 뿐 아니라 가족과의 유대 및 결속을 증진시켜 사회로부터 소외와 배제를 극복하게 할 수 있다 [11].

그러나 수명연장에 따라 노년기의 기간이 길어진 것을 고려할 때 후기 노령기까지도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늦은 노년기에는 건강의 악화, 배우자의 죽음,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사건으로 심리사회적 상태에 있어 더욱 취약성을 보일 수 있는 시기이다 [12]. 선행연구에 의하면 초고령 노인은 자신의 인생을 성취해야 하는 목표가 없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무기력과 체념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건강한 자아를 위한 노력이 삶의 안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2]. 이러한 측

면에서 후기 노령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후기 노령기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목표의식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사유형 중 전문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인의 평균 교육연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 및 교육수준, 직업경력, 건강수준으로 구성된 전문성이 높은 노인일수록 재능나눔사업에 비해 전문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1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련 요인은 노인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 자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에 있어 인적 자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적 자본은 교육 또는 훈련에의 투자를 통해서 내적으로 체득되고 축적된 생산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성취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14]. 교육기회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현 노인세대 보다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15] 향후 미래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한 후 인적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자원봉사는 강제성이 동반되지 않으므로 내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인생에 대한 성취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타인과 사회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여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분석결과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계층의식은 T-test에서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층 지위를 높게 인식할수록 기부행위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16].

계층의식은 개인의 사회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의식적 요인이며 명예나 위신과 같이 중요한 사회적 동기로 작용한다 [16].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이나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이 다소 규범적인 사회일 경우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기대되는 역할이 기부의 주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17].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계층의식이 높다고 생각하는 노인일수록 자신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는 사회적 계층의식이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사회적 요인 중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전문성 활용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는 노인들이 가지는 사회적 관계망에 속해 있는 타인들을 알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기회를 얻는 것이며 이러한 유대관계로 인해 참여를 직접

적으로 요청받을 기회도 생기게 된다 [18]. 또한 이러한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정보와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 References

- [1] J. Y. Jung, S. B. Ko and S. I. Na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meaningful social activity and meaning in life of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42, no. 4, August 2022, pp. 873-891, doi: 10.31888/JKGS.2022.42.4.873.
- [2] H. K. Lee, "Elderly volunteering as a productive aging activity: effects of human capital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45, September 2009, pp. 317-346, doi: 10.21194/kjgsw..45.200909.335.
- [3] M. S. Chang and K. S. Park,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for the aged: from the ecosystem perspectiv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2, June 2012, pp. 232-266, doi: 10.15709/hswr.2012.32.2.232.
- [4] H. K. Lee, "Volunteering among older adults and health: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6, no. 1, February 2016, pp. 173-188.
- [5] H. J. Shin and H. K. Lee, "Experience and meaning of elderly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 focusing on elderly talent sharing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4, no. 3, September 2019, pp. 117-145, doi: 10.21194/kjgsw.74.3.201909.117.
- [6] S. H. Chang, "The impact of longest-held job in lifetime on job satisfaction among employed older adults: comparing occup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45, no. 2, June 2025, pp. 171-190, doi: 10.15709/hswr.2025.45.2.171.
- [7] S. D. Chung, H. J. Lee, H. J. Choi, G. E. Kim and S. Y. Lee, "Experience and meaning of social capital of Korean middle class elderly men and women -focused on the elderly participating the senior welfare center-",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57, September 2012, pp. 221-260, doi: 10.21194/kjgsw..57.201209.221.
- [8] M. J. Kwak, S. W. Keum and M. H. Kang,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mmunity service types and empowerment of senior citizens: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expert and general services",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vol. 22, no. 3, December 2015, pp. 237-258, doi: 10.17089/kgr.2015.22.3.011.
- [9] Statistics Korea, "Year 2023 report on the social survey", Statistics Korea, Daejeon, Korea, December 2023. [Online]. Available: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pubcode=KN>.
- [10] K. O. Rhee and J. Y. Lee, "The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young old men and the perspective after their retire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7, no. 1, February 2005, pp. 93-120.
- [11] L. N. Byon, Y. S. Kim and T. S. Hyun, "A comparative study of policie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baby-boomer retirees in Korea and Japa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1, no. 4, December 2011, pp. 315-344, doi: 10.15709/hswr.2011.31.4.315.

- [12] S. W. Lee and J. S. Choi, "Life change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oldest old",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3, no. 1, March 2018, pp. 81-109, doi: 10.21194/kjgsw.73.1.201803.81.
- [13] E. J. Ji, "Paradox of talent-sharing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professionalism",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28, no. 4, December 2019, pp. 225-269, doi: 10.22897/kipajn.2019.28.4.008.
- [14] H. J. Choi, S. Y. Lee and S. D. Chung,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and depress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43, no. 2, June 2015, pp. 149-175.
- [15] H. S. Jung, S. W. Kim and S. H. Ahn, "Generation and multidimensional inequality in Korea",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63, March 2014, pp. 337-369, doi: 10.21194/kjgsw..63.201403.337.
- [16] J. Y. Kim and D. S. Kim, "Effects of the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and social capital on donation behavio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3, no. 2, June 2013, pp. 401-430, doi: 10.15709/hswr.2013.33.2.401.
- [17] H. S. Tak,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atus and donation behavior: focusing on analysis of donation participation and donation inten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44, no. 4, December 2024, pp. 151-173, doi: 10.15709/hswr.2024.44.4.151.
- [18] H. K. Lee, "Old-age volunteering and social capitals :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50, December 2010, pp. 263-290, doi: 10.21194/kjgsw..50.201012.263.